

이야기 2 : 요셉1 (요셉의 꿈)

주제말씀
[창세기 39:23b]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야곱에게는 열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중에서도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아들에게는 입히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게 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꾸는 꿈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들!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의 곡식 단이 저의 단에게 꾸벅 절을 했어요. 또 어느 날은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내 별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두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보내서 양을 돌보러 간 형들이 잘 있는지 살피라고 했어요.
요셉을 질투한 형들은 요셉이 오는것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르우벤이 말렸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요셉의 옷을 벗기고 마른 웅덩이에 넣어 가두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돈 이십 냥에 팔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멋진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혔어요.
그런 다음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 주었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슬피 울었어요.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하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부인의 거짓말에 속은 보디발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요셉을 가뒀어요.
요셉은 억울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왕의 술을 맡은 사람과 왕의 빵을 구워 올리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이 무척 안 좋아 보였어요. 술관원이 말했어요.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네.” 요셉이 꿈을 풀어 주었어요. “그 꿈은 삼일 후에 왕께서 당신을 용서 하시고 다시 궁으로 부르실 꿈이에요.

만약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빵관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은 빵관원의 꿈도 풀어주었어요.

3일이 지나자 요셉의 말대로 되었어요. 그러나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어느 날, 이번에는 바로 왕이 이상한 꿈 두 개를 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 했어요.

그 때, 바로 왕의 술을 맡은 신하는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술관원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지혜 있는 자를 압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요셉을 즉시 불렀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바로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애굽의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요셉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요셉과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셨으니 너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왕은 인장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서 빼서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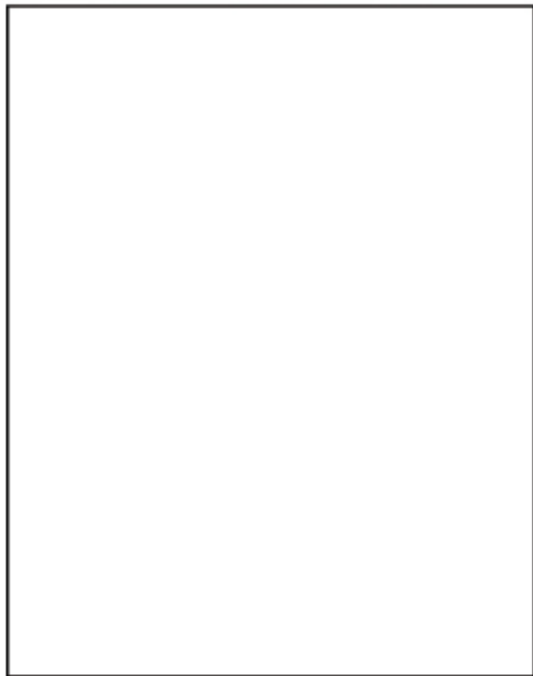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하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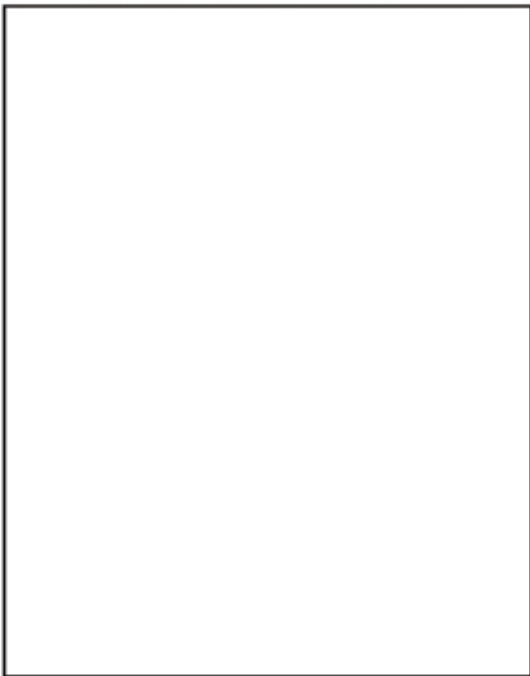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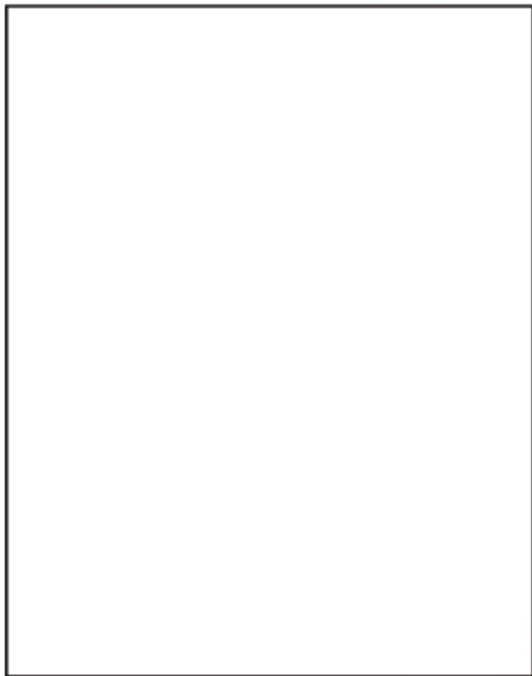
활동 1. 태양과 달 그리고 열한개의 별을 그려보세요.



태양



11개의 별



달

● 다음 성경구절을 따라쓰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39:23b)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활동 2.

오늘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의 그림을 색칠해 주세요.

